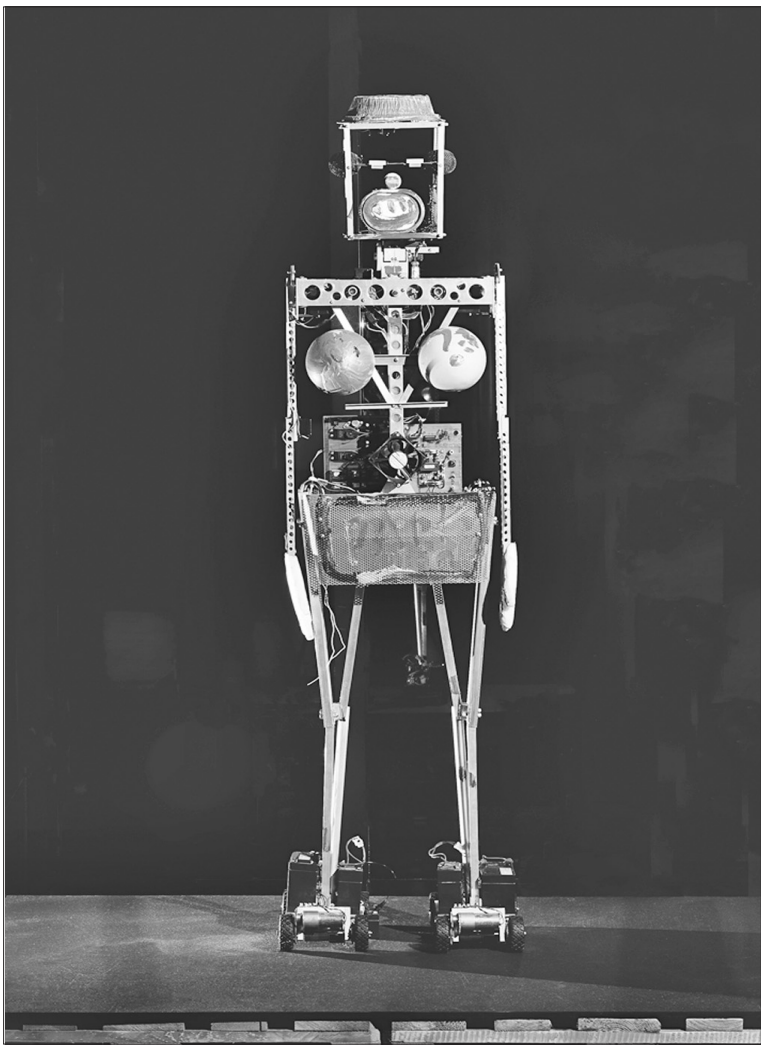




백남준 작 'K-456'



발리 푸글랭 작 '트레이스: 애도의 프로세서, 광주에서'



노진아 작 '네르바 아티피시아'

60년 전 백남준 로봇 오늘날 AI와 마주 서다

‘인간을 해치지 말라.’

아이작 아시모프는 소설 ‘아이, 로봇’에서 로봇에게 이같은 원칙을 부여했다. 이 원칙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묻는 오래된 질문으로 남아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리는 ‘ACT 페스티벌 2026’은 이 질문을 다시 인간에게 돌린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함께 세계를 만들 어가는 동시대, 우리는 기술 앞에서 어떤 원칙과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

‘ACT 페스티벌 2026’ 올해 주제는 ‘아이, 휴먼: 테크네세(世)에 응답하기’다. 기술이 인간의 감각과 선택, 행동 방식은 물론 관계의 모양까지 바꾸는 시대를 ‘테크네세’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기술과 어떤 사이인가’를 묻는다.

페스티벌은 ‘기술은 앞만 보고 달리고, 우리도 함께 달려왔다.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묻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윤

리를 기계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술 앞에 선 인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칠지 정해야 한다는 질문을 전시와 공연, 다이얼로그, 미디어월 프로그램으로 확장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29팀이 참여한다.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백남준이 1964년 만든 첫 로봇 ‘로봇 K-456’을 만날 수 있다.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한 이 작품은 무선 조종으로 거리를 걸으며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공을 ‘배설’하던 로봇이다. 작품은 지난 1982년 미국 휘트니미술관 회고전 당시 뉴욕 거리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퍼포먼스 ‘21세기 최초의 참사’를 선보이 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뉴욕 일렉트 로닉 아츠 인터믹스가 제공한 백남준의 영상 두 편을 통해 ‘K-456’이 뉴욕 소호 거리를 활보하던 모습과 교통사고 장면을 볼 수 있다.

ACC ‘ACT 페스티벌 2026’ 23일 개막…‘아이, 휴먼’ 주제
1964년 ‘K-456’과 피지컬 AI 신작 선봬…인간·기술 성찰
국내외 29팀 참여 XR·오디오비주얼 공연·전시 등 ‘다채’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60여 년의 시간을 건너온 백남준의 로봇을 오늘날 피지컬 AI 작품들과 나란히 세운다. 말을 걸면 AI로 대답하는 노진아의 로봇 설치 작품 ‘네르바 아티피시아’, 관람객의 호흡으로 작동하는 정혜련의 ‘슈나타로부터’, 소프 트로보티스로 이루어진 권혜원의 ‘산호화자 R의 진화 알고리즘’이 ACC 커미션 신작으로 처음 공개된다.

전시는 기술이 매끄럽게 작동할 때보다

어긋나고 멈추는 순간에 주목한다. 인지적 글리치와 물리적 글리치, 즉 기계가 만든 영상인지 사람이 만든 영상인지 알 수 없어 흔들리는 순간과 기술의 몸이 멈추거나 삐걱거리는 순간을 통해 관람객은 기술의 시대에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묻는다.

확장현실(XR) 작품도 눈길을 끈다. 크레이그 킨테로와 피비 그린버그의 ‘블러’(BLUR)는 2025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

머시브 부문에서 공개된 작품이다. 화자당 10명의 관객이 헤드셋을 쓰고 실제 배우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VR·AR·AI가 결합된 세계를 체험한다. 아들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걷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캐나다 감독 발리 푸글랭의 ‘트레이스: 애도의 프로세서, 광주에서’는 4명이 함께 체험하는 VR 다큐멘터리의 광주 버전이다. 감독은 약 2주간 광주에 머물며 5·18 민주화운동 오월어머니들을 만나고, 무등산과 광주의 역사를 조사해 작품을 새롭게 만들었다. 관객은 체험에 앞서 자신의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한 장과 짧은 경험담을 공유한 뒤 꿈결 같은 숲을 함께 걷는다. 서로의 슬픔 곁에 머무는 경험을 통해 치유와 연대의 감각을 전한다.

밤의 극장에서는 빛과 소리가 하나가 되는 오디오비주얼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23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빅도어시터

에서 자이 탕, 타마나라멘, 고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24일에는 작가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상욱 전당장은 “60여 년 전 뉴욕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백남준의 로봇부터 오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품은 가상의 숲까지 이번 페스티벌은 앞만 보고 달려온 기술의 시대에 잠시 멈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자리”라며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한국 작가들의 창제작 신작과 세계가 주목하는 작품들을 광주에서 먼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 페스티벌 2026’은 오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ACC 일원에서 열린다. XR 작품 ‘블러’와 ‘트레이스’, 콘서트와 대담 프로그램은 ACC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관람료는 모두 무료.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청춘의 기억·상처·질문…화폭에 담은 스물의 마음들

ACC ‘메아리: Echo of Youth’ 18일까지 대나무정원
전남대 미술학과 7명 회화 28점…전시 구성 참여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2026 ACC-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 II’의 두 번째 전시 ‘메아리: Echo of Youth’를 오는 18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선보인다.

ACC는 지역 예술가와의 상생을 위해 학생 등 예비 예술가들에게는 대나무정원을, 지역 신진 작가 및 원로 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한 전시 공간을 할애하는 등 전 생애적인 예술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 4~5월 광주예술중·고등학교와 함께 ‘2026 ACC-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 I’을 선보였으며, 9월부터는 지역대학과 함께 ‘2026 ACC-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 II’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도자디자인전공 학생 작품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학생 7명이 참여하는 ‘메아리: Echo of Youth’로, 스물쭈م 청춘 시기에 마주하는 다양

한 감정을 담은 회화작품 28점으로 소개한다.

전시는 ‘청춘의 기억’에서 출발해 ‘일상의 빛’과 ‘관계의 형성’, ‘존재의 충돌’과 ‘침묵의 여운’, ‘상처의 수용’을 거쳐 ‘남겨진 질문’에 이르기까지 각 서사를 일곱 단계로 연결한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전시 제목의 ‘메아리’처럼 작가의 마음에서 시작된 감정과 경험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닿아 작가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빛이 머무는 겨울밤’(임은결), ‘Passing-이적(離隔)’(정서연), ‘수로지명’(水路之名, 하정민), ‘미청년’(未淸年, 허은서) 등이다. 학생들이 작품 제작은 물론 전시 공간 구성 등 전시 준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전시 기간에는 전시장에 상주해 창작 의도를 직접 전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예비 예술가에서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



허은서 작 '미청년'

는 자리”라면서 “ACC는 지역의 젊은 예술 인재들이 역량을 펼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지속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 II’는 오는 11월 5~22일 호남대학교 시각융합디자인학과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www.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ACC는 지난해 광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대나무정원에서 전시한 데 이어 올해는 광주예술중학교가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작품 전시는 올해로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익숙한 노래로 장소·사람 다시 보는 콘서트

광주문화재단, 1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의 장소에 깃든 사람과 기억을 철학과 음악으로 풀어내는 강연형 콘서트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4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2026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2회차를 선보인다.

‘2026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사이의 발견-스쳐 지나던 순간에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강연과 공연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강연형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진다.

회차마다 전문가가 ‘장소’라는 화두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쳐 지나던 공간을 예술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아카데미는 광주문화재단과 시민자유대학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철학자의 해설과 음악 공연을 결합한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김원준의 공연을 통해 광주의 장소에 깃든 사람과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살펴본다.

박 교수는 “장소에 깃든 사람과 이야기”를 주제로 도시 공간의 변화 속에서 지워지는 사람과 기억, 장소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급속한 도시 변화로 장소에 쌓인



박구용 교수

흔적과 기억이 사라지는 가운데, 광주의 장소에 깃든 사람과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가수 김원준은 이날 무대에서 ‘바위섬’, ‘직녀에게’, ‘광주천’, ‘나는 바이크타고 시베리아에 간다’ 등을 들려준다.

철학적 사유와 라이브 공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만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강연형 콘서트는 익숙하게 지나쳤던 광주의 장소를 다시 바라보고,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과 기억을 음악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우선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회차별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대기자로 등록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회차는 오는 11월 18일 열리며, 신기한 도슨트가 ‘명화 속 위로의 장소’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